

CCITT위원장 Mr. Irmer 초청 교육세미나

정영호/ITU국장



CCITT 위원장 초청교육 세미나 1992. 1. 28~1. 30
주최: (재)한국통신기술협회

I. 세미나 개최 배경

선진권으로 도약하기 위해 발돋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제환경이 놀라울 정도로 변화하고 있음에 따라서, 세계 9위권에 도달한 통신 선진국이란 면모에 걸맞도록 ITU국제회의에 참석하는 빈도와 인원도 증가하여, 동양권에서는 일본 다음으로 많은 추세에 있다. 그렇지만 국익에 도움이 되는 ITU에서의 활동 또는 기고서 제출 실태는 아주 미약한 실정으로, 이에 본 협회와 체신부 관계관들이 수차에 걸쳐 논의한 끝에 회의 참가자들의 회의 진행 방법과 요령이

미숙한 점을 비롯 자질상 커다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키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던중 실무 교육을 통한 해소책이 무엇보다 바람직한 것으로 결론지어졌으며, ITU와 관련된 국제회의 참가자의 능력을 배양하고 국내 ITU전문가를 양성하는 하부구조를 구축함은 물론 국제표준화활동에 대한 인식제고등을 효과적으로 모색하기 위한 교육세미나를 개최하도록 결정하였다.

장기간에 걸친 여러 차례의 교섭을 통해 개최준비를 꾸준히 진행시켜, 한국통신연구 개발단 빌딩에서 1월28일부터 1월30일까지 3일간 열린 이번 세미나에서는 CCITT 위원장인 Dr. Theodor Irmer(독일인)가 강사로 초청되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강사의 약력을 간략히 소개하면, Dr. Irmer는 1962년 독일 칼스루대학을 나와 독일 연방 우정성에 근무하며 CCITT SG XVIII의장(1972~

▼세미나 강사로 초청된 Irmer CCITT위원장



1984)을 지낸 바 있고 1984년부터 현재까지 1989년 재임명을 거쳐 위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II. 세미나의 진행

세미나가 열린 첫날에는 ITU와 CCITT, 그리고 CCIR에 관한 개요를 소개한 다음 Ad-hoc Group결과를 소개하였다. 이어 국제회의 참가자로서의 준수 사항, 금기 사항 등에 관한 교육 안내와 회의 진행 등에 대한 실습 교육으로써 요령을 전수 하였다.

이어 둘째날에는 ISDN 서비스의 표준화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에 따라 역할을 분담하여 국제 회의 진행을 실습하였고, 세미나의 마지막 날인 제 3일째에는 CCITT권고의 개정에 관한 가상 시나리오에 따른 역할 분담에 의한 실습이 진행되었다.

또한 진행 과정중에는 Video Tape에 녹화된 회의 진행 내용을 보면서 교정과 수정 그리고 지도 훈련 등이 계속 이루어 졌으며, 상호 일체감 조성을 통해 효율성 제고를 모색하였다.

III. 참가자격 및 참가인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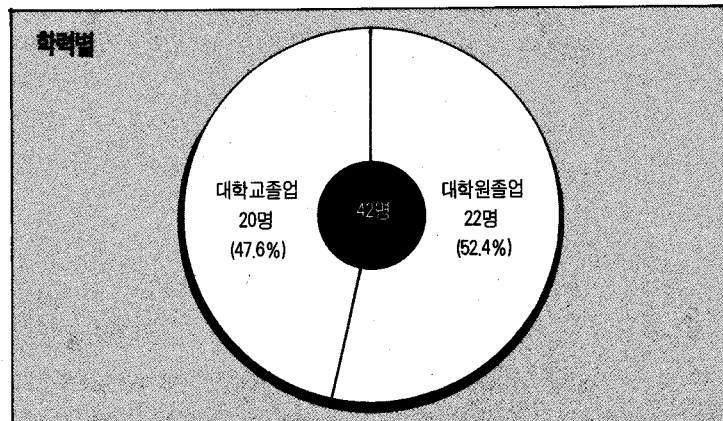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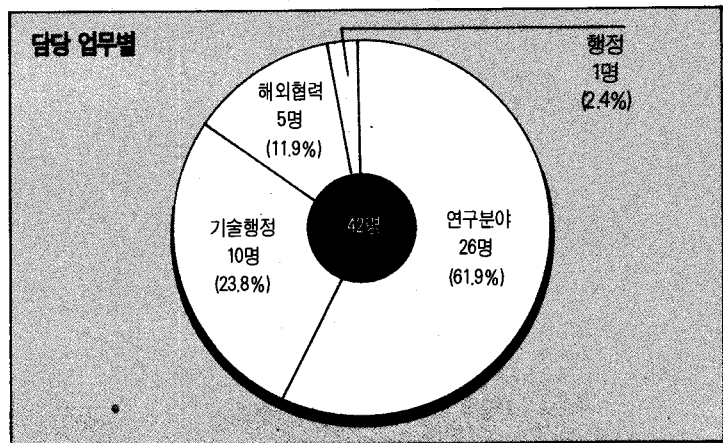
이번 교육 세미나에는 ITU 국제 업무 및 연구 담당 분야 근무자로서 영어회화가 가능한 자에 한해 참가하도록 하였으며, ITU 국내 연구단 요원에게는 우선 참가 자격을 부여하였다.

세미나에 참여했던 회사들은 한국전기통신공사, 한국

전자통신연구소, 한국데이터통신주식회사, 삼성전자주식회사, 금성정보통신주식회사, 동양전자, 한국이동통신주식회사, 한국전산원, 대우통신주식회사 등 9개 회사로 사무국을 포함한 참가인원은 45명이었다.

참가자별 성향을 분석해 보면,

이번 세미나를 수료한 42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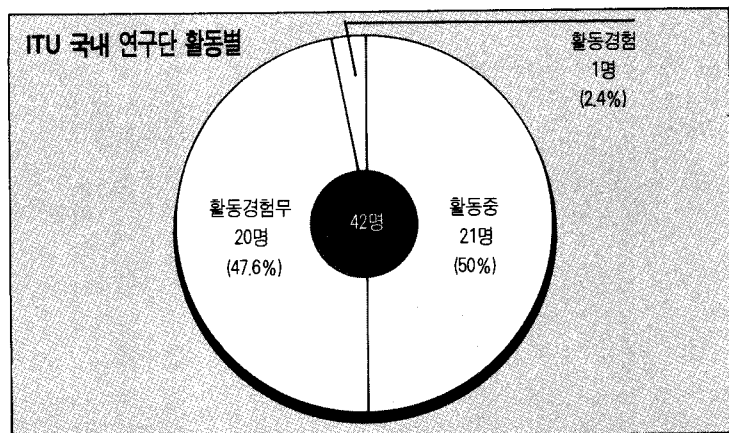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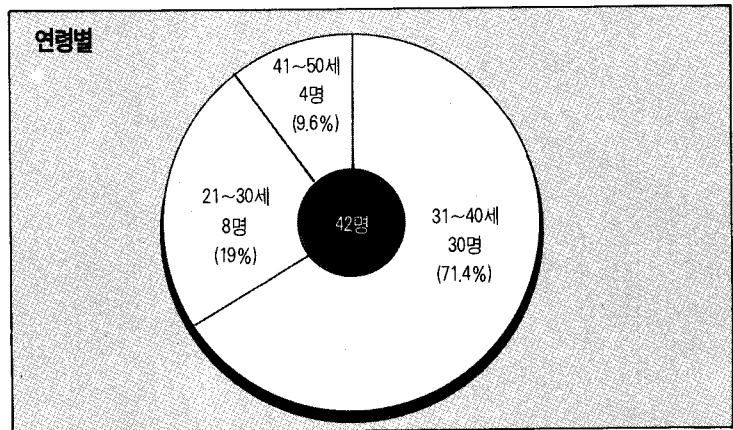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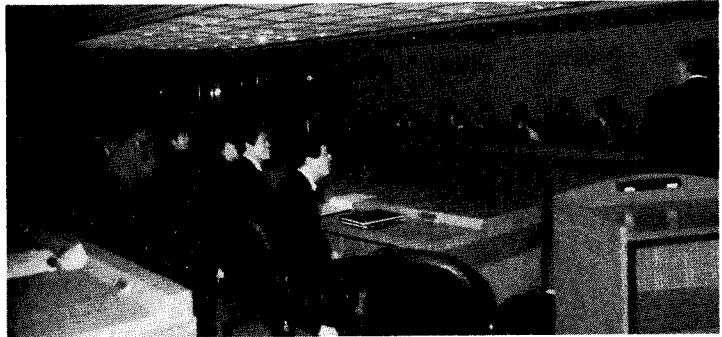
의 참가자중, 담당업무별로는 행정업무에 종사하는 1명을 제외하면 기술행정직 10명, 해외협력직 5명, 연구분야가 26명으로 참석자의 대부분이 이번 세미나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고 있음을 익히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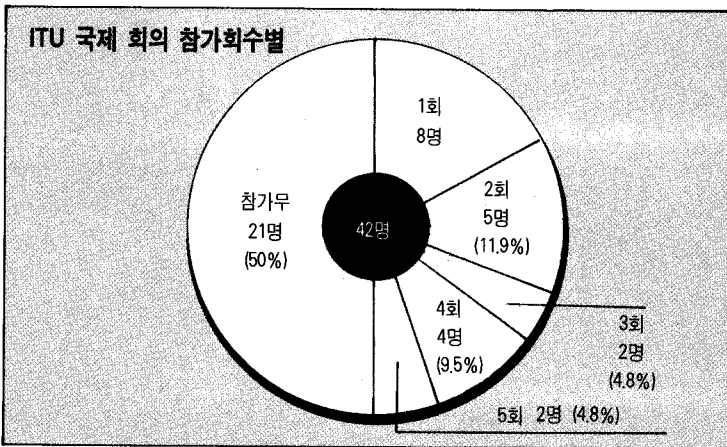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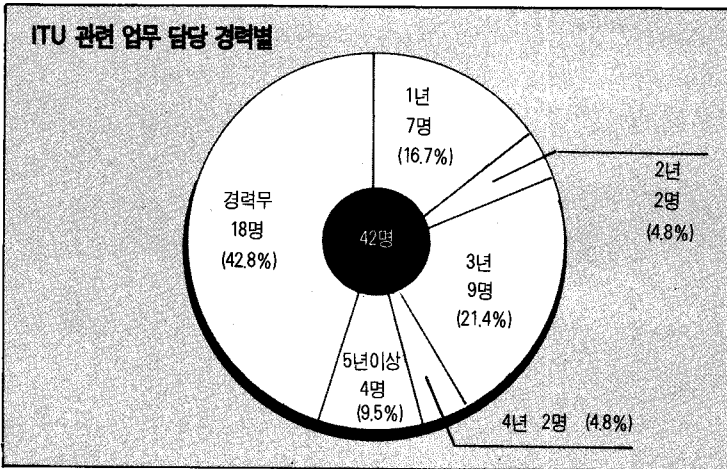
학력별 분포를 보면, 참석자 전원이 대학 이상의 출신자이며 그 중 22명은 대학원을 졸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있어서는 31세에서 40세 사이가 3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밖에 21세~30세가 8명, 41~50세가 4명으로 가장 활동적인 중견 간부급의 업무자가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됐다.

ITU 연구단 활동별로 보면, 현재 활동 중에 있는 사람이 21명, ITU연구단에서 활동한 경험이 없는 사람이 20명으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고 활동 경험이 있으나 현재는 활동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 1명이었다. 참석자의 과반수 가까이 연구 활동 경험이 없었던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세미나 내용을 이해하기 다소 어려운 참석자가 많았음을 알 수 있었다.

ITU 관련 업무 담당 경력별로 보면, 경력이 전혀 없다는 18명으로 전체의 50%에 가까운 숫자였으며 3년 미만인 9명, 3년 9명, 5년 이상은 4명이었다.





세미나에 대한 의견과 관련 참석자 모두가 유용하다고 답변 세미나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무경력자가 많은 것은 순수 연구 분야 요원이 많이 참석한 때문이라고 보인다.

ITU 국제 회의의 참가 경력 여부를 보면, 세미나 참가자의 절반에 해당하는 21명이 참가한 경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것 또한 세미나의 내용 이해와 습득에 어려움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IV. 세미나 결과 및 분석

세미나 결과에 대한 것은 참석자들에게 실시한 간단한 설문조사의 내용을 빌어 봄으로써 알 수 있었다.

세미나 기간에 대한 질문에서 참석자 중 29명이 옹한 가운데 적당하다고 답한 사람이 23명, 너무 짧다는 의견이 5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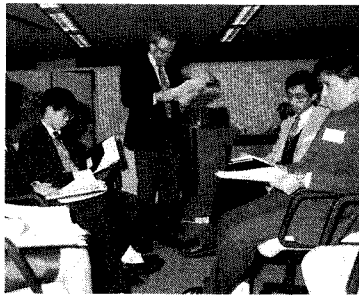


으로 대체적으로 기간에는 무리가 없었음을 반증한다고 하겠다.

세미나에서 기대했던 정보의 정도에 대한 질문에 대해 많았다 13명, 적었다 4명, 적당했다가 12명으로 세미나에서 다량의 유익한 정보를 얻을 것으로 기대한 사람이 대부분임을 보여주었고, 이와 관련해 세미나가 업무에 도움을 준 정도에 대한 답으로 다소 도움이 되었거나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참석자 전원이 답을 하였다.

강의의 질적·내용적인 면에서 볼 때는 매우 좋다가 16명, 적당하다가 12명으로 강의내용이 적절했음을 보여준다.

세미나의 Role Play에 있어서 적당하다는 의견이 18명으로 가장 많았고, 매우 적당하다가 8명이었으며 불충분하다는 의견을 가진 사람도 3명 있



▲ 열강하는 Irmer위원장

었다.

이번 세미나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에 대해서는 유용하다가 16명, 매우 유용하다가 13명으로 참석자 모두가 세미나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설문 결과와 진행 과정 등을 종합해 볼 때 세미나의 개최는 적절한 시기에 ITU 분야 업무 관련자들에게 유용한 행사였으리라 생각되고, 향후 그들이 국제무대에서 펼칠

원활한 활동과 위상에 적잖은 도움이 되리라 사료된다.

한편, 강의 수준이 다소 높아 이해가 불충분했다는 점과 교육 기자재를 신속히 마련하여 공백이 없도록 대처하지 못한 점 등 일부 미흡한 점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이렇게 미비했던 점들을 개선해서 차후 개최할 여타 행사에 반영하고 사전 철저한 기획을 모색할 것을 다짐하면서 국내 최초로 펼쳐진, ITU국제회의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세미나로 인해 국제무대에서의 위상이 저만치 넓게 펼쳐질 것으로 여기며, 너와 나를 한정짓지 않고 더불어 이룰 ITU 분야 연구활동에의 무궁한 발전을 기대해 본다.

註 : 본 협회에서는 Mr. Irmer 위원장이 열강하였던 강연회 내용의 모든 것들을 VTR테이프에 수록하였습니다. 귀중한 강연 내용을 교육 또는 홍보에 사용하기를 희망하는 단체·개인께서는 당 협회자료실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